설날가정예배순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설날가정예배순서

인도자 : 가족 중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시간을 정한 뒤,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모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인도자, 기도자를 정합니다.

예 식 사 ····· 인 도 자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기도 ····· 인 도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찬 송 ····· 550장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기 도 ····· 가족 중에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2022년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만 예배하도록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앞서가시며 채우시는 주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예배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성 경 봉 독 ·····골로새서 3장 12-17절····· 가족 중에서
설 교 ····· 인 도 자

(사회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저마다 새해 소원을 빕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의 행복' 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사랑받은 것을 넘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또 다른 책임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시작됩니다.

둘째로 '평화'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15, 새번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부어 주시면서 서로 하나되어 평화의 모습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며 격려할 때,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속에 풍부하게 살아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6).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투성이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내용들이 끊이질 않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소망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즐거운 날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꿈꾸는 가정,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 바랍니다.

찬 송 ····· **435장**(또는 가족이 좋아하는 찬송) ····· 다 함 께
기 도 ····· 가족 중에서
주 기 도 문 ····· 다 함 께

*각 가정은 예배문을 참조하여 가정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묘 가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혹은 조상)의 무덤 앞에 모여 잠시 동안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 : 489장(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

◦명절에 부모님을 추모하며 드리는 기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기르실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
명절에도 시름이 많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니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때때옷으로 차려입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못 다한 효도를
자식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형편에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희망의 터전을 일구다 가신 부모의 본을 따라
저희들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 데살로니가전서 4 : 13 - 18
◦설교 : (생략할 수 있다.)
◦찬송 : 491장
◦주기도문